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9월:-15.2%→10월:1.5) - 10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8.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여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냄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축소(9월:15.7%→10월:6.8%) -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부문이 각각 6.6%, 8.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6.8%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1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지난 5년간 서울의 10월 평균 물가 상승률(-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를 전년동월비 포함세 - 1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63.1%로 남자는 74.7%, 여자는 52.2%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포함세 - 1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497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비 포함세를 나타냄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1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9%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9%p)는 지난달과 동일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1,4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6%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주택 및 상가·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66.1%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및 상가·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48.6%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1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7%, 연립주택은 0.5% 각각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0.1% 하락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축소 - 10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11조 7,968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4,193억 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9조 3,528억원)보다 축소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6.5%(-112개) 감소한 1,617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6.9%로 나타남 ○ 서울의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크게 감소, 어음부도율 상승 - 11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78개) 보다 24.4%(-19개) 감소한 59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11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큰 폭 상승 - 11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11월말경 6%대까지 오른 후 일시적으로 하락함(10월말 5.43%→11월 29일 6.03%→11월말 5.77%)

| 생 · 산 |

10월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큰 폭으로 회복

- 10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수출과 내수의 호조세 지속 및 추석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2.5일)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17.8%) 증가함
- 업종별로는 반도체(30.7%), 자동차(24.5%), 선박(17.5%), 기계장비(16.2%) 등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냄

■ 서울 제조업부문 증가세로 전환

- 10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8.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여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냄
-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증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여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냄
- 세부업종별로 비금속광물(31.7%), 고무 및 플라스틱(17.7%), 조립금속(15.2%) 등은 증가하였고 화학물 및 화학제품(-78.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8.2%) 등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도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여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냄
- 세부업종별로 종이제품(27.0%), 의복 및 모피(7.8%), 가죽·가방 및 신발(6.5%) 등은 증가하였고 음식료품(-22.1%), 섬유제품(-6.0%)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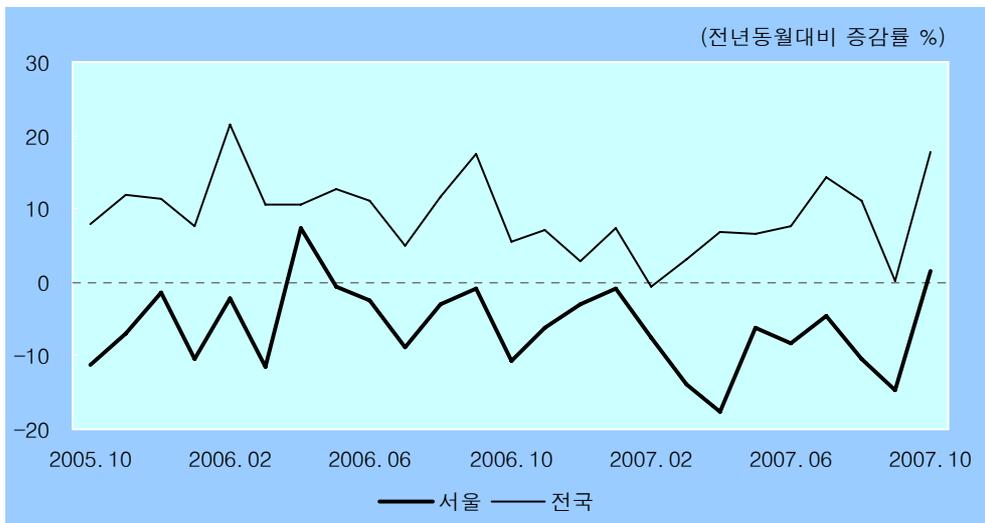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5.5 (0.3)	7.6 (1.9)	14.3 (2.0)	11.2 (0.7)	0.3 (-0.2)	17.8 (3.0)
	서울 (제조업)	-10.6 (-4.5)	-8.5 (-4.5)	-4.6 (-1.9)	-10.7 (-4.3)	-15.2 (4.9)	1.5 (14.3)
	중공업	-22.2 (-9.9)	-13.3 (2.7)	-14.7 (-19.9)	-23.9 (-8.8)	-27.7 (-0.4)	0.6 (25.5)
	경공업	-6.4 (-2.8)	-6.5 (-6.9)	-1.1 (5.0)	-6.1 (-2.9)	-11.1 (6.4)	1.7 (11.3)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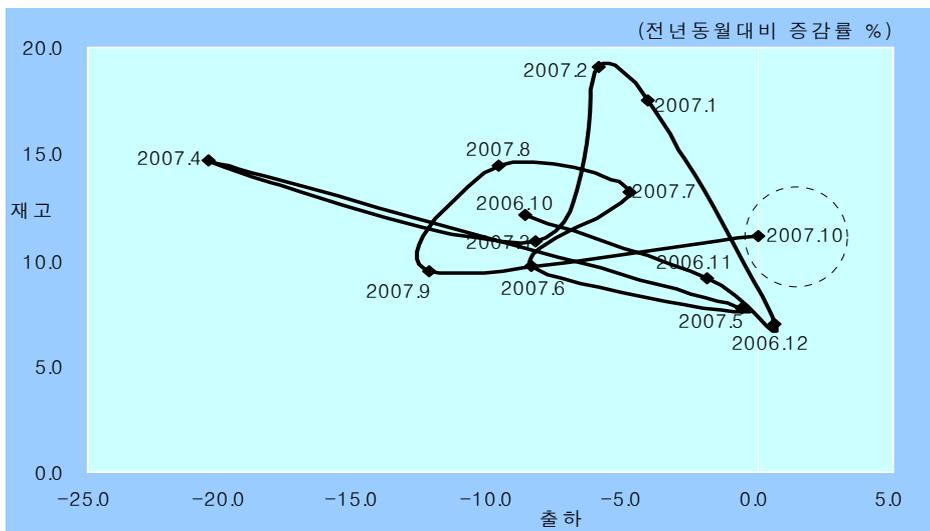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0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전년동월과 보합, 재고 증가세
 - 10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과 비슷하고, 재고는 11.1%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는 감소세가 전년동월 보합으로 나타나고 재고 증가세는 소폭 확대됨에 따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상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도 상향하여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하락

- 10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0.2%로 전월대비 0.9%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92.1%로, 전월 보다 11.6%p 하락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3.5%p 하락하여 212.9%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3.9%p 하락한 184.0%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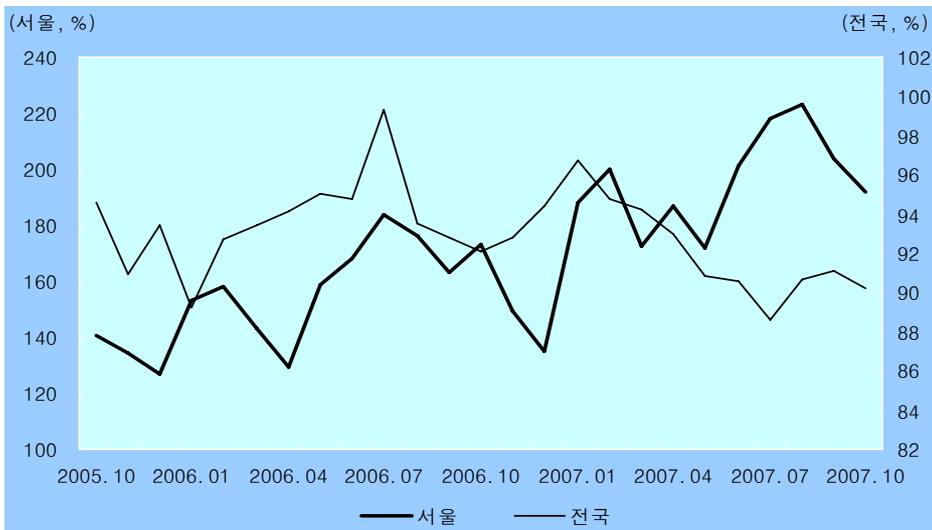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재고율	전국	92.1	90.6	88.6	90.7	91.1	90.2	-0.9
	서울 (제조업)	172.9	201.3	218.3	223.4	203.7	192.1	-11.6
	중공업	153.7	217.4	264.2	269.9	216.4	212.9	-3.5
	경공업	176.7	194.0	202.7	207.9	197.9	184.0	-13.9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0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축소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크게 축소

- 10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99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백화점은 의복, 운동·오락용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 대형마트는 의복, 운동·오락용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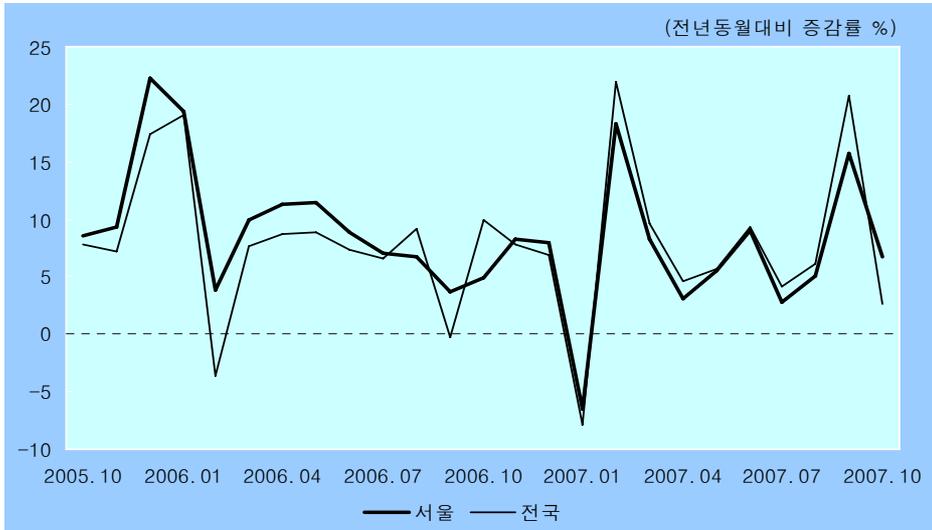
-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4,08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의복, 신발,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6.6%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신규사업체 증가로 인하여 8.0% 증가함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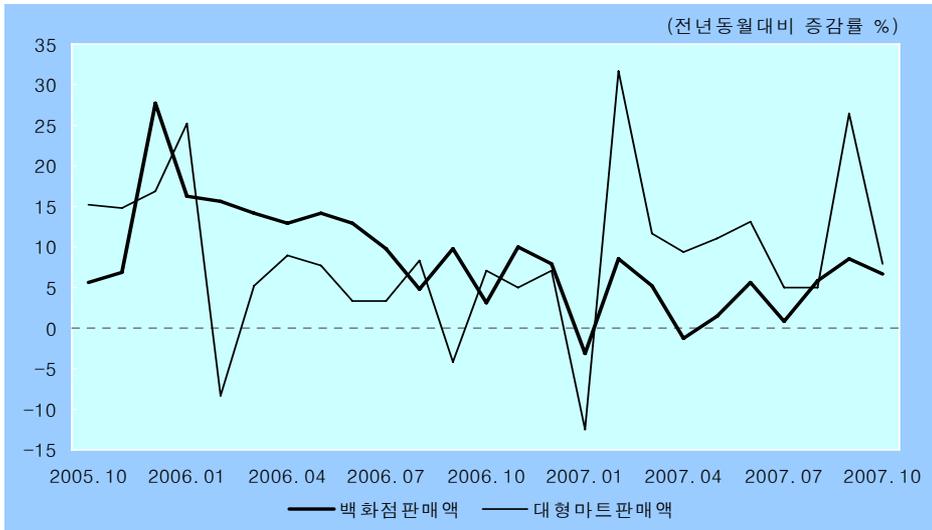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판매액	전국	3,990.1 (9.9)	3,665.9 (9.3)	3,784.8 (4.2)	3,562.9 (6.2)	4,489.4 (20.7)	4,099.1 (2.7)
	서울	1,318.7 (4.9)	1,226.1 (9.0)	1,231.0 (2.8)	1,123.0 (5.0)	1,459.0 (15.7)	1,408.6 (6.8)
	백화점	781.8 (3.1)	655.4 (5.7)	658.4 (0.8)	561.0 (5.8)	773.5 (8.6)	833.6 (6.6)
	대형마트 (할인점)	504.0 (7.1)	536.4 (13.2)	531.8 (4.9)	527.0 (4.9)	649.0 (26.5)	544.5 (8.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보합

- 11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채소와 과실류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경유, 휘발유 등 석유류와 금반지 등 공업제품이 상승하고,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보합한 것으로 보임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1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로 상승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0.0%)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난 5년간 11월 평균 물가상승률(-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및비주류음료(-2.2%), 보건의료(-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교통(1.5%), 기타잡비(0.9%), 주거및수도광열(0.7%), 의복및신발(0.6%)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보합, 서비스부문은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인 반면, 서비스부문은 0.2% 상승을 나타냄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이 각각 내려 전월대비 3.5%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은 금반지와 휘발유 등이 올라 전월대비 1.0%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집세는 전세, 월세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하고, 공공서비스도 전월대비 0.5% 상승 하였으며, 개인서비스는 LPG(취사용)는 올랐으나, 공동주택관리비, PC방이용료 등이 내려 전월대비 0.0% 보합을 나타냄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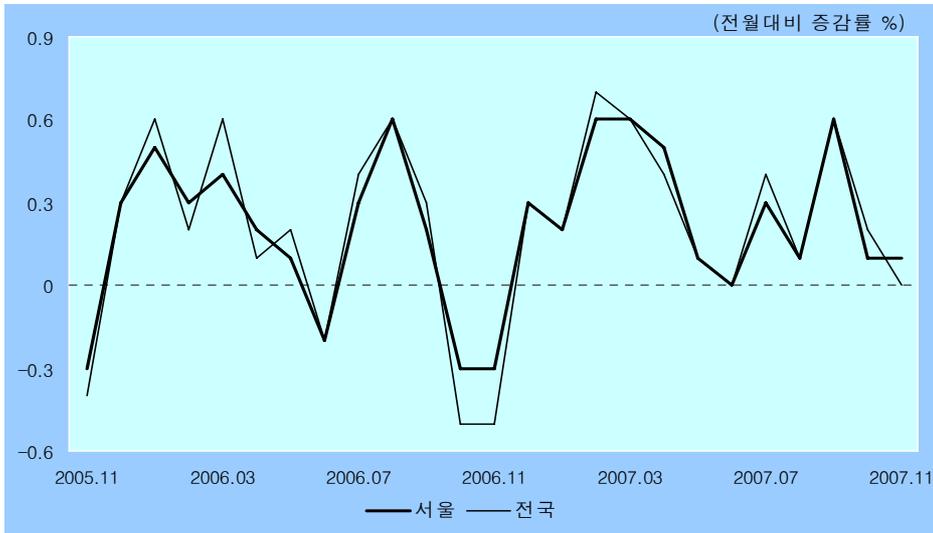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여 지난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임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과 신선채소, 기타신선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6.3% 하락하여 지난달(1.3%)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전국	-0.5 (2.1)	0.0 (2.5)	0.4 (2.5)	0.1 (2.0)	0.6 (2.3)	0.2 (3.0)	0.0 (3.5)	
	서울	-0.3 (2.1)	0.0 (2.8)	0.3 (2.7)	0.1 (2.2)	0.6 (2.6)	0.1 (3.0)	0.1 (3.4)	
	상품 성질별	상품	-1.0 (0.9)	-0.2 (1.8)	0.5 (2.1)	0.1 (0.8)	1.3 (1.9)	0.3 (3.0)	0.0 (4.1)
		서비스	0.0 (2.7)	0.0 (3.1)	0.2 (2.9)	0.1 (3.0)	0.3 (3.0)	0.0 (2.9)	0.2 (3.1)
	생활물가	-0.7 (2.6)	-0.1 (3.5)	0.4 (3.6)	-0.1 (2.7)	0.9 (3.2)	0.3 (3.9)	0.0 (4.7)	
	신선식품	-6.8 (1.2)	-3.2 (7.4)	3.7 (10.4)	0.2 (-1.2)	8.9 (5.7)	1.3 (10.1)	-6.3 (10.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1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세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11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42만4천명) 증가한 3,931만6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0%(24만6천명) 증가한 2,447만1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5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포함

- 11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1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518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63.1%로 남자는 74.7%, 여자는 52.2%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0.1)	1.1 (0.2)	1.1 (-0.5)	1.0 (-1.4)	1.0 (0.5)	0.9 (0.6)	1.0 (0.0)
	서울	-0.2 (0.3)	0.2 (-0.3)	1.0 (0.5)	1.1 (-0.8)	1.2 (0.5)	0.5 (0.2)	0.2 (0.0)
	남자	-1.3 (-0.1)	0.8 (-0.1)	1.1 (0.7)	1.6 (-0.5)	1.1 (-0.3)	0.4 (-0.2)	0.7 (0.2)
	여자	1.3 (0.8)	-0.6 (-0.7)	0.9 (0.2)	0.4 (-1.2)	1.4 (1.7)	0.5 (0.8)	-0.5 (-0.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3	62.8	62.6	61.7	62.0	62.3	62.2
	서울	63.4	63.1	63.4	62.8	63.1	63.1	63.1
	남자	74.6	75.1	75.6	75.1	74.8	74.6	74.7
	여자	52.7	51.8	51.8	51.2	52.0	52.4	52.2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11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포함세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전국의 취업자는 2,37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8만7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9%(1,374만4천명), 여자는 42.1%(999만5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2.0%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0.2%)에 비해 감소폭이 0.4%p 증가한 -0.6%이며, 고령층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7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포함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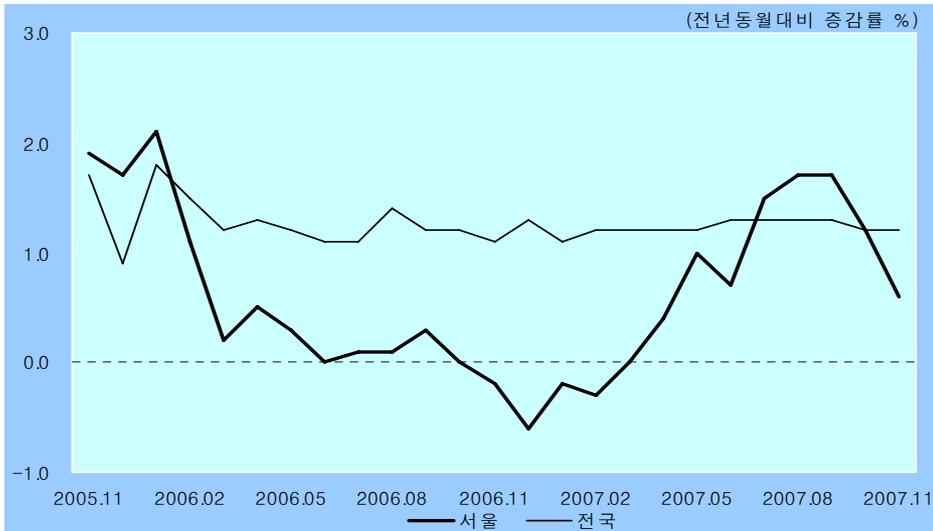
- 11월 서울의 취업자는 497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3만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나 9월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3%(285만1천명), 여자는 42.7%(212만7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6%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0.6%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4% 증가하고 여자는 0.5% 감소하여 남자는 전월(1.2%)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상승을 보인 반면, 여자는 전월(1.3%)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전체 취업자의 20.8%(103만8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전체 취업자의 15.0%(74만5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여 전월(2.5%)에 비해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1.8%p 축소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2.7%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0.9% 감소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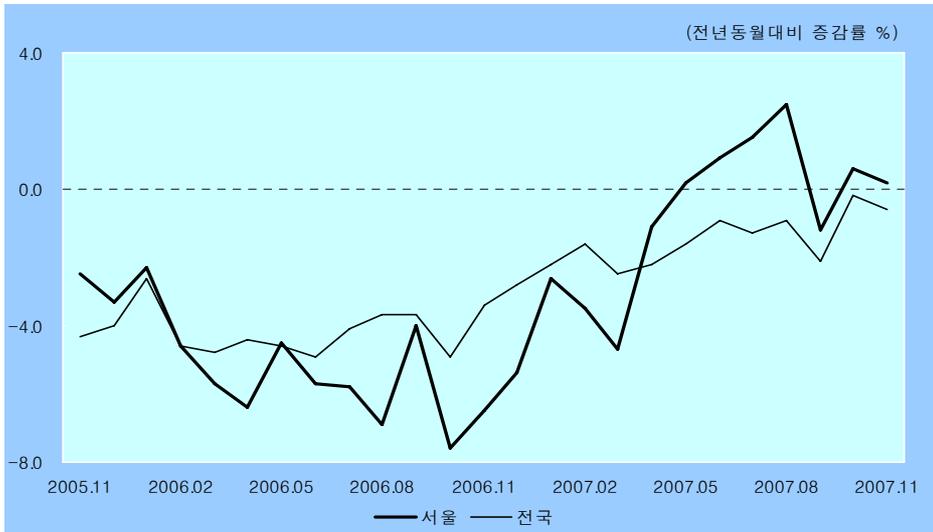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취업자	전국	1.1 (0.0)	1.3 (0.2)	1.3 (-0.3)	1.3 (-1.2)	1.3 (0.7)	1.2 (0.5)	1.2 (0.0)
	서울	-0.2 (0.6)	0.7 (-0.1)	1.5 (0.3)	1.7 (-0.8)	1.7 (0.6)	1.2 (0.1)	0.6 (0.0)
	남자	-1.6 (0.1)	1.0 (-0.1)	1.0 (0.4)	1.6 (-0.7)	1.1 (-0.3)	1.2 (0.1)	1.4 (0.3)
	여자	1.7 (1.3)	0.3 (-0.2)	2.1 (0.2)	1.9 (-1.0)	2.5 (1.8)	1.3 (0.1)	-0.5 (-0.5)
청년층 취업자	전국	-3.4 (1.0)	-0.9 (-0.1)	-1.3 (2.9)	-0.9 (-3.0)	-2.1 (-2.5)	-0.2 (1.3)	-0.6 (0.6)
	서울	-6.5 (1.4)	0.9 (-0.3)	1.5 (1.7)	2.5 (-2.3)	-1.2 (-3.0)	0.6 (-0.5)	0.2 (1.0)
고령층 취업자	전국	6.3 (-1.5)	5.6 (0.2)	5.7 (-2.2)	5.5 (-0.6)	5.0 (1.5)	2.6 (0.4)	2.0 (-2.1)
	서울	7.4 (0.3)	5.1 (-1.3)	9.4 (1.5)	8.1 (-0.7)	10.7 (3.8)	2.5 (-2.1)	0.7 (-1.6)
	55-59세	2.4 (1.2)	0.4 (-3.2)	5.7 (3.4)	7.2 (0.2)	5.9 (1.6)	5.4 (1.5)	2.7 (-1.3)
	60세 이상	11.3 (-0.5)	8.7 (0.0)	12.3 (0.2)	8.7 (-1.3)	14.5 (5.4)	0.3 (-4.7)	-0.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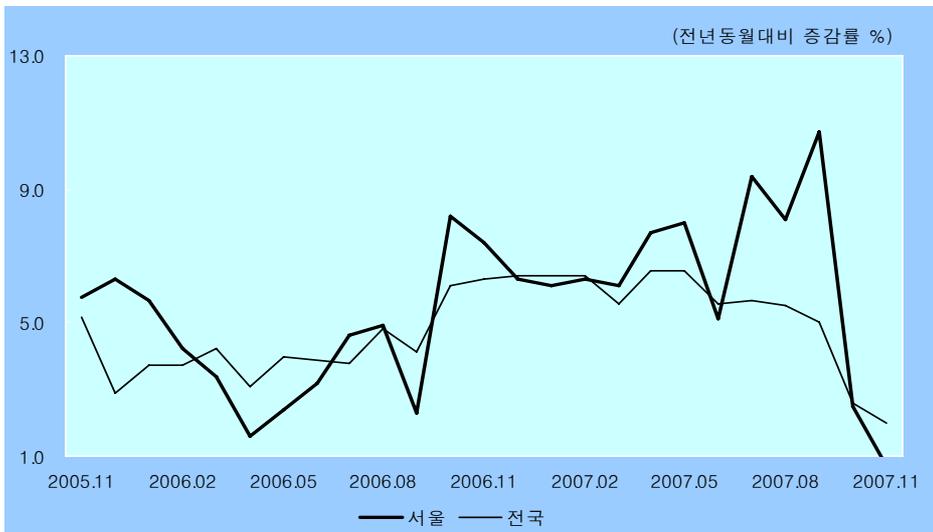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11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3%), 제조업(1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7%), 건설업(8.8%)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여 전월(8.2%)에 비해 증가폭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9.7%), 건설업(4.8%)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9.8%, 도소매·음식숙박업은 3.5%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8.0%)에 비해 소폭 확대됨

■ 사무종사자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0%)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7.9%), 서비스·판매 종사자(25.7%), 사무종사자(15.3%) 순임
- 사무종사자(-3.4%)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1%)를 제외하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3.2%)와 서비스·판매 종사자(3.2%)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11월에는 상승세로 반전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11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6% (366만6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4%(131만2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0.6%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5%(5만5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1.9%(2만5천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비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2.9%)와 임시근로자(-4.3%)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5.2% 감소하고, 자영업주는 1.3%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별	· 제조업	-6.1 (-6.6)	-5.0 (-0.4)	-7.6 (-0.4)	-7.5 (-2.5)	-4.8 (3.5)	-8.0 (1.9)	-9.8 (-8.5)
	SOC 및 기타서비스업	0.9 (2.0)	1.9 (-0.1)	3.2 (0.4)	3.5 (-0.6)	2.6 (-0.2)	3.1 (0.1)	2.5 (1.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5 (2.8)	9.2 (1.7)	10.0 (0.8)	9.4 (-0.6)	7.3 (-0.5)	8.2 (1.3)	4.5 (-0.7)
	· 도소매·음식숙박	-1.2 (0.6)	-6.9 (-0.2)	-5.0 (1.7)	-4.0 (-0.6)	-4.7 (-0.9)	-5.5 (-1.4)	-3.5 (2.7)
	· 전기·운수·통신·금융	0.3 (4.0)	4.3 (-1.9)	3.3 (0.7)	2.9 (-0.4)	6.3 (0.3)	7.1 (-0.3)	9.7 (6.6)
	· 건설업	1.5 (0.6)	-2.0 (-5.2)	2.5 (1.9)	4.5 (-0.5)	2.9 (2.8)	5.0 (-0.1)	4.8 (0.5)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8 (1.6)	7.1 (4.0)	6.2 (-1.4)	7.3 (0.0)	6.0 (0.4)	5.8 (-0.8)	3.2 (-0.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0 (-1.9)	-0.3 (-2.9)	-0.7 (1.7)	1.2 (-1.6)	0.6 (0.8)	-1.4 (0.9)	-2.1 (-2.5)
	서비스·판매종사자	-2.5 (1.3)	-8.8 (-2.1)	-2.6 (2.0)	-3.8 (0.1)	-1.9 (-0.2)	-0.3 (0.8)	3.2 (4.8)
	사무종사자	-0.9 (2.4)	6.7 (-0.1)	3.1 (-1.3)	1.3 (-2.6)	-0.2 (0.4)	0.3 (0.6)	-3.4 (-1.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0 (0.5)	2.7 (-0.6)	1.6 (0.7)	3.0 (-1.2)	3.4 (1.1)	2.8 (0.3)	1.5 (-0.7)
	비임금근로자	-3.4 (0.7)	-4.5 (1.0)	1.1 (-0.8)	-1.7 (0.3)	-2.9 (-0.8)	-3.1 (-0.4)	-1.9 (1.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11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보합

- 11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0%(실업자 73만3천명)로 전월(3.0%)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실업자 47만8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5%(실업자 25만4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1.9%, 고졸은 3.6%, 대졸 이상은 3.0%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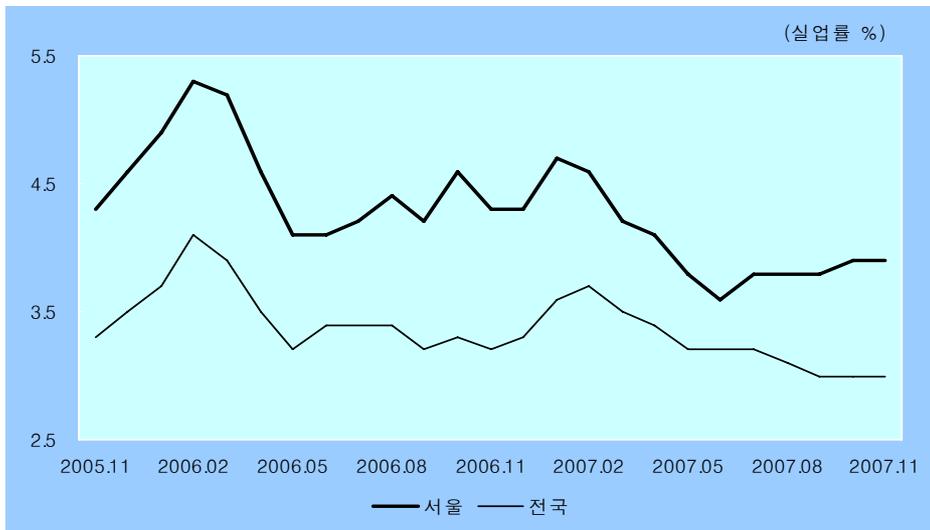
- 1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9%(실업자 20만4천명)임
- 11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9%p)는 지난달(0.9%p)과 동일하며, 지난 5년간 11월 평균 실업률 4.4% 보다 0.5%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 여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7%p 감소하고, 여자는 전년동월 실업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2%p 높은 반면에, 여자는 0.6%p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0.4%p 감소한 0.6%p로, 5월 이후 확대되어 오던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임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3.2	3.2	3.2	3.1	3.0	3.0	3.0	
서울	4.3	3.6	3.8	3.8	3.8	3.9	3.9	
성 별	남자	4.9	4.1	4.4	4.6	4.6	4.3	4.2
	여자	3.6	2.9	3.0	2.8	2.7	3.3	3.6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10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0조7,352억 원으로 아파트 등 건축부문과 도로공사 등 토목 부문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4.7%의 증가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104.2% 증가하고, 민간부문도 103.8%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84.3% 증가하고, 건축부문은 110.0%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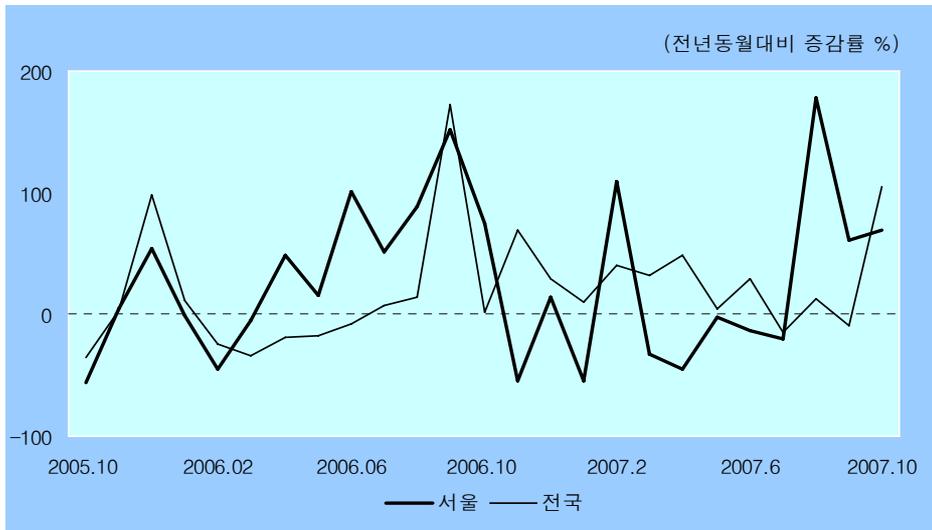
- 10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1,449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6%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20.0%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주택 및 상가·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66.1% 감소하였으며, 재개발주택 및 상가·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48.6%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7.3%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73.3% 증가하였으며, 2.5%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19.2% 감소함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5,245	11,901.6	6,059.5	6,586.3	9,122.4	10,735	104.7	17.7	
서울	1,272.1	2,215.8	890.3	2,325.7	2,124.2	2,144.9	68.6	1.0	
발주 자별	공공	480.6	18.6	55.6	104.8	75.1	163.1	-66.1	117.2
	민간	791.4	2,139.8	834.7	2,200.4	1,983.8	1,967.9	148.6	-0.8
공종 별	건축	1,203.9	2,161.9	877.6	2,200.8	2,119.6	2,086.3	73.3	-1.6
	토목	66.8	46.5	7.8	118.7	3.3	54.0	-19.2	1536.4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7년 11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813.9천㎡로 전년동월대비 76.0% 감소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단독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87.4% 감소하고, 아파트는 80.7% 감소하였으며, 연립은 전년동월대비 69.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85.6%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공업(100.0%), 문교 및 사회(83.85%), 상업(73.3%), 기타(64.7%) 모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75.4% 감소함
- 2007년 11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구로구(217.7천㎡)로 상업용 신축허가면적이 209.7천㎡를 차지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서울	3,395.8	3,341.9	3,844.0	3,688.4	5,800.5	813.9	-76.0	-86.0	
주거용	소계	205.3	260.7	290.5	405.0	1,853.5	29.5	-85.6	-98.4
	단독	13.1	16.3	14.8	8.6	16.8	1.7	-87.0	-89.9
	연립	66.4	141.7	84.8	77.2	109.4	20.6	-69.0	-81.2
	아파트	37.3	98.3	189.5	319.2	1,726.7	7.2	-80.7	-99.6
비주거용	소계	3,190.6	3,081.2	3,553.5	3,283.3	3,947.0	784.5	-75.4	-80.1
	상업	2,608.5	2,468.3	2,998.2	2,776.2	2,416.9	696.6	-73.3	-71.2
	공업	37.4	109.4	32.7	49.1	111.4	0.0	-100.0	-100.0
	문교/사회	539.2	312.6	483.7	413.5	206.1	87.2	-83.8	-57.7
	기타	1.7	177.0	38.9	39.6	1,212.1	0.6	-64.7	-100.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소폭(0.3%) 상승함
- 재개발 투자수요로 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강세가 지속됨
- 올해 11월은 국지적인 개발호재로 인한 가격상승 기대감이 작용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이 어갔으나 전년동월(3.1%)에 비해 크게 안정된 수준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전월대비 0.2%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이 0.3%, 연립주 택이 0.6% 상승하여 재개발 투자 수요로 인한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2%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에 비해 0.1%p 확대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9% 상승하고, 강남은 0.0% 상승하여 강북지역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전월대비 0.8%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은 0.5%, 아파트 는 0.3% 상승을 보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 비 증감률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3.1	0.1	0.3	0.2	0.3	0.3	0.3	4.9	
서울	4.8	0.3	0.5	0.3	0.4	0.4	0.5	8.2	
아파트	6.2	0.1	0.3	0.2	0.2	0.3	0.3	7.2	
지역별	강북	4.1	0.5	0.7	0.4	0.6	0.6	0.9	12.1
주택매매	강남	5.4	0.1	0.4	0.3	0.2	0.2	0.0	4.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강북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7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5%)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4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9%)을 상회함
- 성북구(2.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강북구(2.3%), 노원구(1.3%), 동대문구(1.3%), 서대문구(0.7%), 중구(0.7%), 도봉구(0.6%)의 순임
- 반면 광진구(0.4%), 용산구(0.4%), 은평구(0.4%), 마포구(0.2%), 성동구(0.1%), 종로구(0.0%)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금천구, 영등포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7개 구가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0%)을 상회함
- 금천구가 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등포구(0.4%), 구로구(0.3%), 동작구(0.2%), 강남구(0.1%), 강서구(0.1%), 관악구(0.1%)가 그 뒤를 이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과 상승폭이 동일함
-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8% 상승한데 반해, 강남은 0.0%로 보합을 나타냄
- 구별로 보면 강북구(2.0%), 노원구(1.2%), 동대문구(1.1%), 중랑구(1.1%), 서대문구(0.9%), 성북구(0.9%), 도봉구(0.7%), 은평구(0.7%), 금천구(0.6%), 성동구(0.4%), 관악구(0.4%)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반면 송파구(-0.4%), 서초구(-0.3%), 양천구(-0.2%), 강동구(-0.2%)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종로구, 중구, 강남구, 강서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1,758만원으로 전월(0.1%)과 상승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00만원), 서초구(2,744만원), 송파구(2,527만원), 용산구(2,443만원), 양천구(2,088만원), 강동구(1,902만원), 광진구(1,843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강북구(998만원), 도봉구(969만원), 중랑구(952만원), 은평구(948만원), 금천구(911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1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하락함
- 이사철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보합, 단독주택이 0.3%, 연립주택이 0.5%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연립주택의 경우 9월 이후 가격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11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전월(0.3%)보다 소폭 축소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10월 0.4%에서 11월 0.5%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지역은 10월 0.2%에서 11월 -0.1%로 전월의 상승세가 하락으로 반전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7% 상승하고, 연립주택은 0.5%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0.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1.0	0.0	0.1	0.1	0.3	0.2	0.1	3.1
서울	1.6	0.1	0.3	0.2	0.4	0.3	0.2	4.4
아파트	1.7	0.0	0.1	0.2	0.1	0.1	-0.1	2.9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6	0.1	0.4	0.2	0.6	0.4	0.5	6.0
강남	1.6	0.0	0.1	0.2	0.3	0.2	-0.1	2.9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강북구,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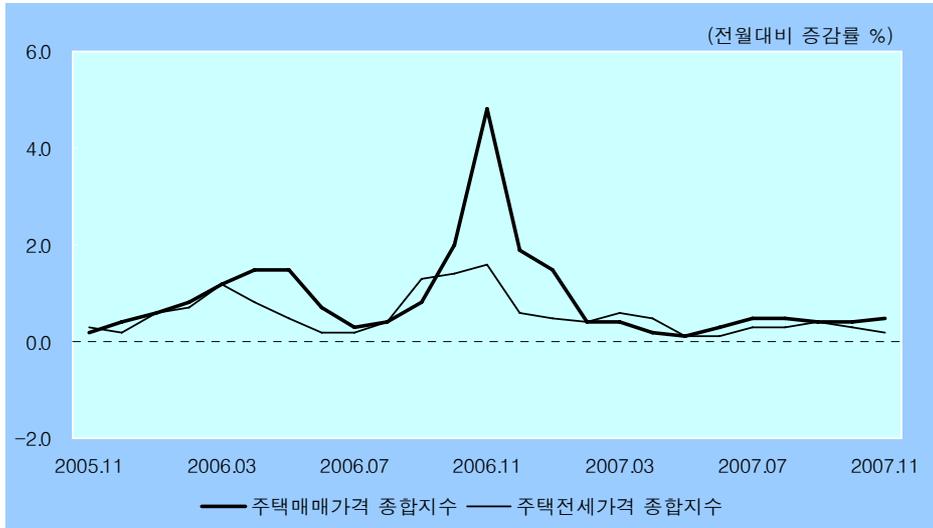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2.3%), 성북구(2.1%)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동대문구(0.8%), 은평구(0.8%), 서대문구(0.5%), 양천구(0.4%), 구로구(0.3%)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함
- 송파구(-1.1%), 서초구(-0.1%), 동작구(-0.1%), 강남구(-0.1%)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도봉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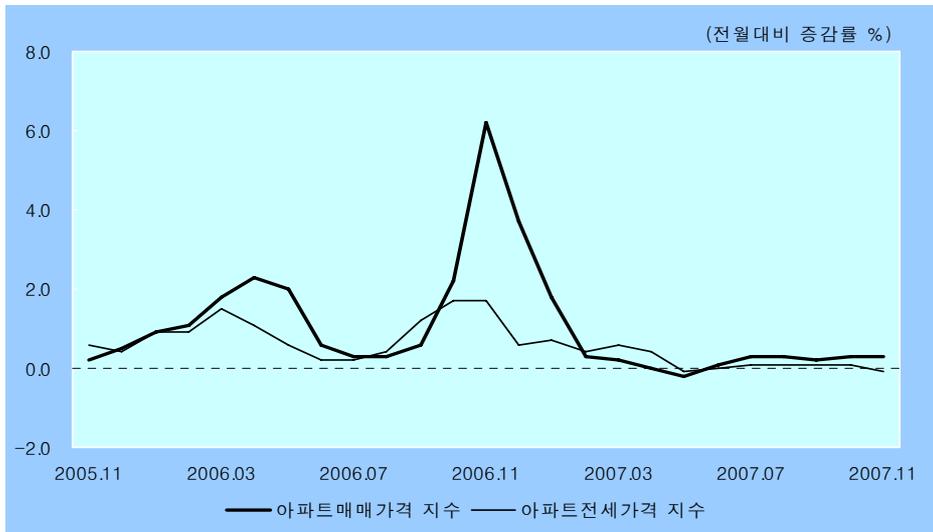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로 하락함
-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강북은 0.1% 상승하고, 강남은 0.3% 하락함
- 구별로는 동대문구(1.2%)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서대문구(0.8%), 성동구(0.4%), 중랑구(0.2%), 구로구(0.2%), 성북구(0.1%), 은평구(0.1%), 관악구(0.1%), 금천구(0.1%), 양천구(0.1%)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강동구, 영등포구에서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반면 송파구(-1.5%), 광진구(-0.6%), 동작구(-0.3%), 중구(-0.3%), 서초구(-0.2%), 강서구(-0.1%), 강남구(-0.1%), 마포구(-0.1%)는 전월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함
- 10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625만원으로 강남구(969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금천구(441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 2007년 11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4%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3%p) 하락을 보이며, 올해 5월(43.2%)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 이는 전국 평균 54.1%를 11.7%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는 10월에 비해 0.2%p 확대됨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8.3%, 강남은 37.4%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5월 이후로 미미하지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도 미미한 하락세를 보임
- 2006년 11월 처음 30% 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5%)에 비해 0.1%p 하락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1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큰 폭 상승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큰 폭 상승

- 11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11월말경 6%대까지 오른 후 일시적으로 하락함(10월말 5.43%→11월 29일 6.03%→11월말 5.77%)
- 월초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 국내외 주식시장 하락 등으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하락함
- 월중반 이후 은행권의 CD 및 은행채 발행 증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스왑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외 손절매 물량 등으로 급등한 이후 월말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1.2조원)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CD(91일) 유통수익률 급등

- 11월말 CD 유통수익률은 발행 물량 증가로 급등하여 큰 폭으로(0.25%p) 상승함
- 11월말 콜금리(1일)는 5.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장단기 금리차 확대됨

- 11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의 대폭 상승으로 전월보다 확대된 0.17%p로 나타남

■ KOSPI 지수 하락

- 11월중 KOSPI 지수는 미국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 우려, 중국 등 아시아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심화됨
- 국제유가 상승, 해외 증시 불안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며 1,800p를 하회하기도 하였음(11월 23일 1,772.9p)
- 미 증시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반등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다소 안정을 되찾으면서 1,900p선을 회복함(11월 30일 1,906p)
- KOSDAQ 지수도 동반 하락하여 68.3p가 하락한 741.8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상승

- 11월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위험에 따른 신용경색 및 안전자산 선호경향 확산, 외국인 주식순매도 영향으로 920원대로 상승함
- 월중반까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확대 및 외국인 주식순매도로 933원대까지 반등하였다가(11월 22일) 월말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 921원대로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금 리	국고채(3년)	4.82	5.22	5.43	5.46	5.43	5.77	0.34
	CD(91일물)	4.67	5.10	5.29	5.35	5.35	5.60	0.25
	콜금리(1일)	4.49	4.76	4.98	4.98	5.01	5.02	0.01
	장단기 금리차 ¹⁾	0.15	0.12	0.14	0.11	0.08	0.17	0.09
주 가	KOSPI ²⁾	1,432.2	1,933.3	1,841.7	1,946.5	2,064.9	1,906.0	-158.9
	KOSDAQ ²⁾	622.2	811.5	775.1	794.6	810.1	741.8	-68.3
환율 (W/US\$) ²⁾		929.9	919.3	938.3	915.1	900.7	921.1	20.4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 1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3.3조원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함
- 주택담보대출은 개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집단대출도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미래에셋증권 전환사채 청약증거금 상환 등으로 1.7조원 증가에 그쳐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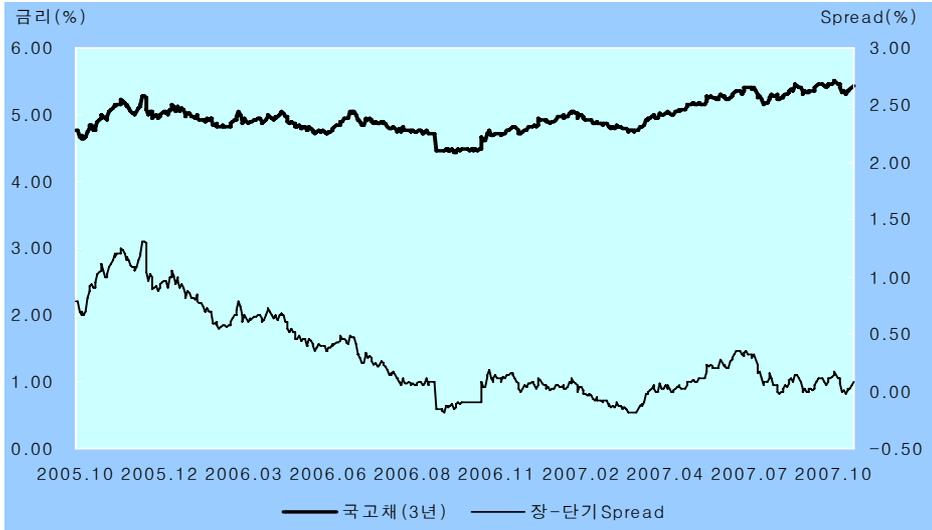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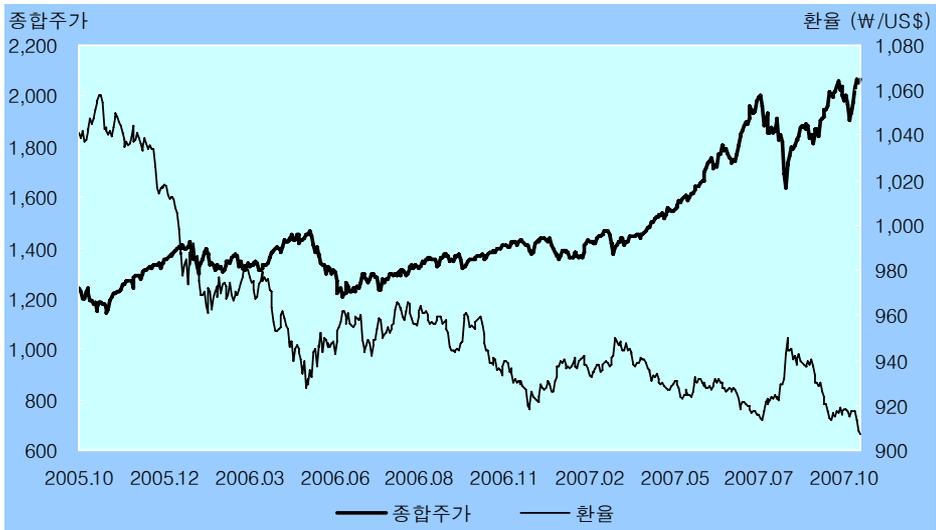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11월	8월	9월	10월	11월	2007년		
							10월	11월	
가계대출 ¹⁾	40.9	5.6	3.4	0.9	3.9	3.3	360.4	363.7	0.9
주택담보대출 ²⁾	26.8	4.2	0.6	0.3	1.1	1.6	219.9	221.5	0.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5	2.8	0.6	2.8	1.7	138.7	140.4	1.2

주: 1)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축소

- 10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39조 6,621억원으로, 전월대비 16조 7,700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9월 증가액: 15조 2,143억)이 확대됨
- 10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11조 7,968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4,193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9조 3,528억원)보다 축소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예금은행	680,074.3	755,114.0	764,660.6	777,069.7	790,358.7	13,289.0
	비은행기관	212,597.5	239,701.4	243,017.2	245,822.4	249,303.4	3,481.0
	합계	892,671.8	994,815.4	1,007,677.8	1,022,892.1	1,039,662.1	16,770.0
서울	예금은행	283,140.3	314,644.3	319,306.4	327,216.4	333,662.8	6,446.4
	비은행기관	59,888.0	74,682.1	75,718.3	77,161.1	78,134.0	972.9
	합계	343,028.3	389,326.4	395,024.7	404,377.5	411,796.8	7,419.3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0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소폭 상승

- 10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8.1%로 전월에 비해 0.2%p 상승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84.6	84.4	85.9	86.4	86.9	87.6	0.7
서울	57.0	56.0	56.6	57.1	57.9	58.1	0.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11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감소

- 1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388개로 전년동월대비 0.1%(-5개) 감소함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9.2%)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5.6%)과 서비스업(-0.5%)은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7.1%, 제조업 16.8%, 건설 및 설비업 15.4%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1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6.5%(-112개) 감소한 1,617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6.9%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4.1%)이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13.6%), 서비스업(-6.3%)은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6.3%(-93개) 감소하여 1,380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크게(92.3%) 증가한 가운데 기타서비스업(61.8%) 등이 증가하였고 통신업(-30.0%), 운수업(21.1%), 도소매업(-21.1%) 등 대부분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85.3%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393	4,298	3,202	4,595	4,388	-5	-0.1	-207	-4.5
서울	1,729	1,654	1,233	1,680	1,617	-112	-6.5	-63	-3.8
서비스업	1,473	1,344	911	1,333	1,380	-93	-6.3	47	3.5
제조업	97	156	186	159	101	4	4.1	-58	-36.5
건설 및 설비업	154	150	135	186	133	-21	-13.6	-53	-28.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11월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상승

- 11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4%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0개로, 전월(258개) 보다 18.6%(-48개) 감소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와 비슷함
- 업종별로 제조업(-14개)과 건설 및 설비업(-9개), 서비스업(-26개) 등 전업종이 감소함

■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

- 11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78개) 보다 24.4%(-19개) 감소한 59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19개, 지방은 29개(180개→151개) 각각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28.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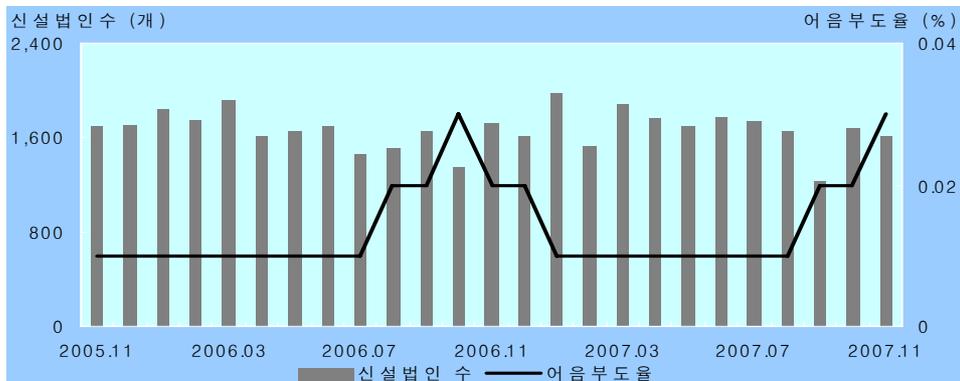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3	0.04	0.01	33.3	0.01	33.3
	부도업체 수	234	194	138	258	210	-48	-18.6	-24	-10.3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2	0.02	0.03	0.01	50.0	0.01	50.0
	부도업체 수	74	63	52	78	59	-19	-24.4	-15	-20.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11월 건당 평균금액 30백만원 초과

■ 건당 평균금액의 꾸준한 증가세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1월중 978건, 31,304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32.4% 감소하고, 금액은 10.0% 증가함
- 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종료에 따른 것이며, 건당 평균금액이 30백만원 초과하여 전년 동월 수준을 회복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115	2,002	1,852	1,223	1,447	978	-469	-32.4	-137	-12.3
금액	39,923	36,270	31,927	21,473	28,455	31,304	2,849	10.0	-8,619	-21.6
건당평균금액	35.8	18.1	17.2	17.6	19.7	32.0	12.3	62.4	-3.8	-10.6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수준의 비율 유지

- 11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도소매업의 비중(금액 기준)이 전월과 비교하여 4.8%p 증가하여 39.1%를 나타내고, 그 외 업종은 전월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88	366	231	232	61	978
비율	9.0	37.4	23.6	23.7	6.3	100
금액	4,021	12,227	5,592	6,541	2,923	31,304
비율	12.8	39.1	17.9	20.9	9.3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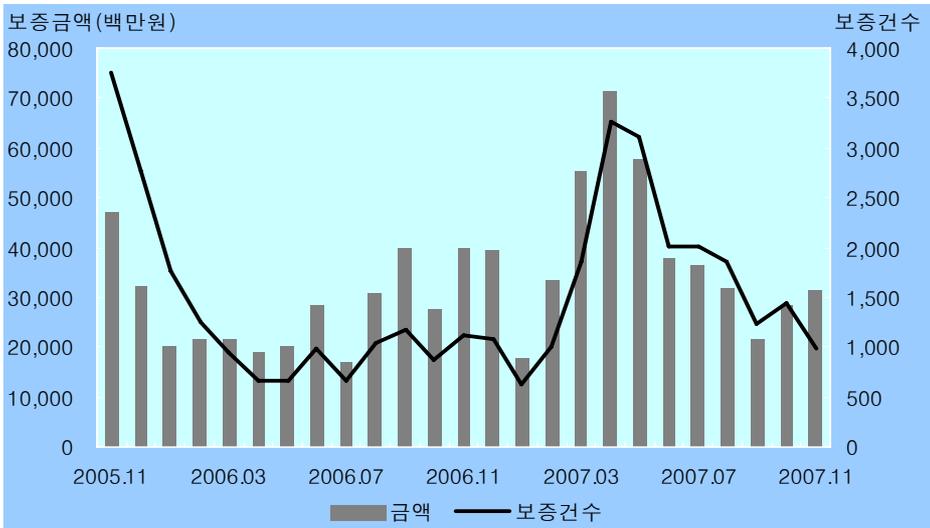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종료로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13.8%p 감소한 반면,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 대비 13.2%p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9	2007.10	2007.1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176	1,380	886	-494
	비율	96.2	95.4	90.6	-4.8
	금액	19,748	25,212	23,402	-1,810
	비율	92.0	88.6	74.8	-13.8
소기업	건수	39	44	77	33
	비율	3.2	3.0	7.9	4.9
	금액	1,146	2,319	6,711	4,392
	비율	5.3	8.2	21.4	13.2
중기업	건수	8	23	15	-8
	비율	0.6	1.6	1.5	-0.1
	금액	579	924	1,191	267
	비율	2.7	3.2	3.8	0.6
합계	건수	1,223	1,447	978	-469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1,473	28,455	31,304	2,849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11월 서울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

■ 전국 수출 월간 최고치

- 11월 전국의 수출은 358억 3,78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함
- 기계·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 지속에 힘입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함
- 품목별로는 일반기계(43.3%), 무선통신기기(30.5%), 선박(22.8%)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11.4%) 등은 감소함

■ 전국 수입 월간 최고치

- 11월 전국의 수입은 337억 74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함
-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용도별로는 원자재가 29.9% 증가한 가운데 소비재와 자본재도 각각 24.5%와 20.0% 증가하여 그 뒤를 이음

■ 서울 수출 증가세 둔화

- 11월 서울의 수출은 25억 1,53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30.9%), 자동차부품(22.1%), 고무제품(17.7%) 등 대부분이 증가한 반면 의류(-8.0%), 무선통신기기(-6.6%) 등은 감소함
- 국가별로는 베트남(95.8%)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국(22.2%), 미국(0.4%) 등은 증가하였고 일본(-4.2%), 홍콩(-2.6%) 등은 감소함

■ 서울 수입 증가세 둔화

- 11월 서울의 수입은 64억 940만불로, 전년동월대비 21.7% 증가하여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
- 품목별로는 그림(1,117.5%)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철강관(127.4%), 동제품(105.8%) 등이 대부분이 증가하였고 항공기및부품(-8.7%), 의류(-6.5%) 등은 감소함
- 국가별로는 러시아연방(269.6%)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국(20.8%), 일본(23.8%), 미국(2.2%)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0,602.3	30,206.2	33,206.2	29,319.6	34,444.1	35,837.8	5,235.5	17.1	1,393.7	4.0
	수입	26,765.1	29,242.4	29,626.0	27,144.4	32,654.2	33,707.4	6,942.3	25.9	1,053.2	3.2
서울	수출	2,191.7	2,277.8	2,329.5	2,104.9	2,438.1	2,515.3	323.6	14.8	77.2	3.2
	수입	5,266.8	5,604.5	5,971.3	5,234.0	6,416.3	6,409.4	1,142.6	21.7	-6.9	-0.1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11월		2006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515,320	14.8	2,191,698	14
1	반도체	204,702	10.4	185,414	54.7
2	편직물	186,065	13.8	163,552	13.7
3	합성수지	115,952	7.3	108,081	52.9
4	자동차부품	108,792	22.1	89,086	60.5
5	의류	104,810	-8	113,985	-21.5
6	고무제품	101,203	17.7	85,961	23.1
7	무선통신기기	87,635	-6.6	93,786	4.9
8	컴퓨터	83,462	15.1	72,494	-16.2
9	인조장섬유직물	81,612	12.9	72,297	4
10	자동차	61,895	30.9	47,283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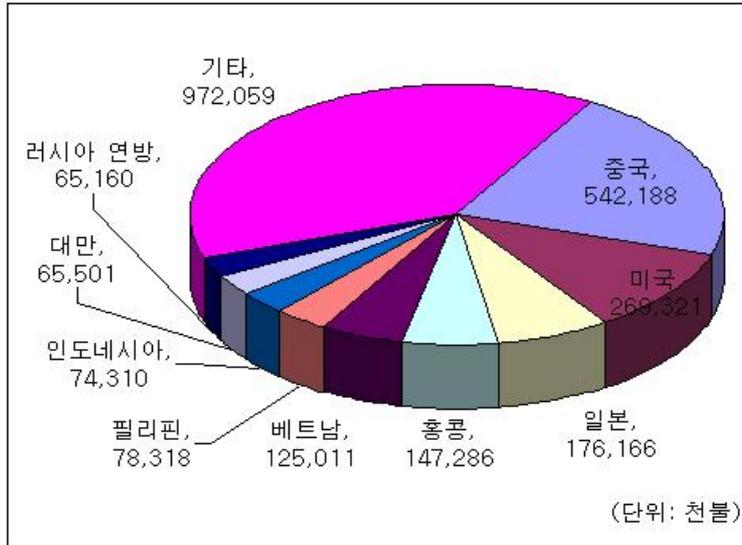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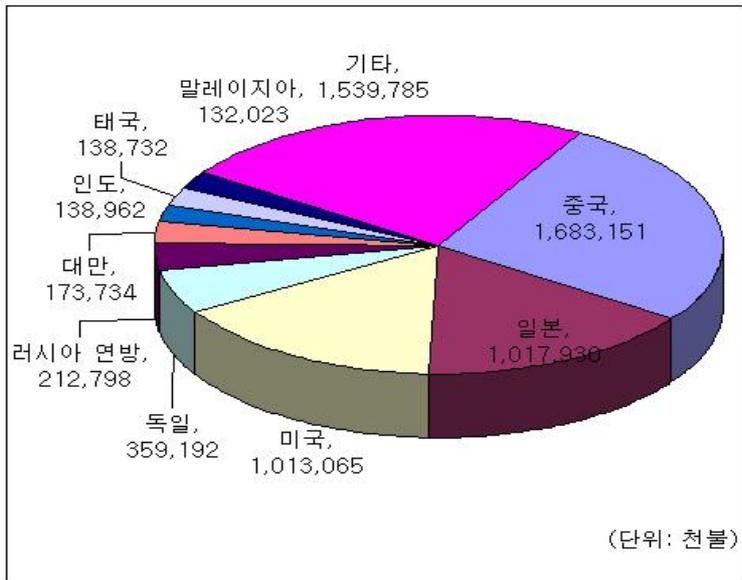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11월		2006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409,372	21.7	5,266,839	13.5
1	반도체	464,363	22.3	379,552	13.8
2	컴퓨터	402,793	11.7	360,636	-17.6
3	항공기및부품	282,794	-8.7	309,656	35.8
4	의류	270,338	-6.5	289,092	69.4
5	자동차	268,898	22.1	220,249	-3
6	석유제품	207,835	63.4	127,207	1.8
7	그림	205,366	1,117.5	16,868	88.2
8	철강판	141,838	127.4	62,361	121.9
9	동제품	132,059	105.8	64,175	66
10	전자응용기기	121,946	21	100,784	-22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